

학교에 아이들이 없다... 전국 초교 23% 전교생 60명 이하

전남 전국서 제일 많은 212개교 10곳 중 1곳 30명 이하 '초미니학교' 원아 10명 이하 '미니 유치원' 31%

저출생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로, 한 학년 평균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1곳은 전교생이 30명 이하의 '초미니 학교'였다. 전남은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가 212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교육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개교(분교장 제외) 가운데 23.1%인 1424개교가 전교생이 60명 이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212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207개교, 전북 206개교, 충남 177개교, 경남 168개교, 강원 165개교, 경기 107개교, 충북 100개교, 인천 17개교, 부산과 제주 각 15개교, 울산 9개교, 광주 8개교, 대전 7개교, 서울과 세종 각 4개교, 대구 3개교 순이다. 전교생 6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년 전인 2003년에는 전체 5463개교 가운데

11.2%인 610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였다. 그러더니 2008년 959개교(전체 대비 16.5%)로 늘어났고, 2013년에는 1188개교(20.1%)에서 전교생이 60명 이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2003년과 비교해 2.3배 늘어난 규모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미니' 초등학교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584개교로 전체의 9.5%를 기록했다.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2003년 141개교(2.6%)에서 불과 20년 만에 4.1배가 됐다. 10년 전인 2013년(394개교·6.8%)의 1.5배 수준이다. 저출생 파고의 최전선에 놓인 유치원도 점차 작

아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원아가 10명 이하인 유치원은 2617개원으로, 전체 8441개원 가운데 31.0%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1234개원(전체 대비 14.2%)이었는데,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출산율 하락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면서 '미니 학교·유치원'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초·중·고 학생 수' 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초·중·고교생은 513만1000명에서 2026년 483만3000명으로 떨어지며 5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됐다. 오는 2029년에는 427만5000천명으로, 올해보다 1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생의 파고

가 유지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점점 변해나갈 것이라는 의미다. 미니 학교의 통폐합이 잇따를 수 있는 만큼,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복식학급(한 교실에 2개 학년을 묶어 같이 수업하는 학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작은 학교더라도 교사들의 행정업무는 큰 학교와 마찬가지로 때문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사를 지금보다 더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외국어센터, '글로벌 교육센터'로 운영 미래 인재 키운다

전남교육청 교육지원청 산하 이중언어·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전남교육청이 교육지원청 산하 외국어 체험센터를 '글로벌 교육센터'로 개편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주배경 학생이 전체 학생 대비 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기존 영어 위주로 운영됐던 외국어 체험센터에 이중언어·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증가하는 이주배경(중도 입국)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습 활동에 기반이 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고, 이들이 가진 언어 강점을 살린 이중언어 교육과 영어교육 프로그램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에는 나주, 해남, 함평, 진도 등 19개소 외국어 체험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이중언어교육 및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도 교육청은 이 지역 센터를 적극 활용해 이주배경 학생뿐 아니라 비 다문화 학생을 아울러 센터가 전남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24 다문화교육 추진 관련 교육지원청 협의회'가 지난 19일 전남도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열렸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은 지난 19일 전라남도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회를 갖고 2024년 다문화교육 주요 방향과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4년 다문화 교육 주요 업무 현황과 외국어 체험센터의 글로벌 교육센터 추진 계획 설명, 전남 19개소 외국어 체험센터 2023년 성과(운영) 및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정병국 전남도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은 "전남은 이주배경 학생 비중이 높은 만큼 지역 중심의 내실 있는 글로벌 교육센터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이중언어, 글로벌 교육에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평가 최고 등급

동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성과 평가에서 호남·제주권 대학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차성과평가에서 2022년에 이어 또 다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앞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을 운영하며 매해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을 포함해 8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8년 연속 '우수'를 받은 대학은 호남·제주권에서 동신대가 유일하며, 전국에서도 5개 대학뿐이다.

동신대는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인프라와 체계적인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 산업체와 협업을 통한 실무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역산업 맞춤형 거점형프로그램 운영, 지역청년층 대상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직무자격증 과정과 일경험 프로그램,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

청년들의 올바른 진로설정과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양일승 동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동신대 재학생 뿐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체계적인 진로설계와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광주대-中 남창이공대, 태권도 프로그램 개발

태권도 대회 등 협력방안 논의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운데)는 최근 학교 행정관 6층 접견실에서 중국 강서성 남창이공대학(총장 범언빈) 정부평교수와 태권도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했다.

김동진 광주대 총장은 "남창이공대학과 2022년부터 학술교류 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면서 "태권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앞으로 더욱 긴밀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북평 남창이공대학 교수는 "김동진 총장배 태권도 대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중국 내 광주대학교 홍보 및 학생 교류 등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남창이공대학 방문단은 이후 예술관 태권도실, 호심관 라이다라운지, 호심기념도서관 등 광주대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학교,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전남대학교가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받았다.

22일 전남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국공립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남대가 지난해에 이어 2등급을 받았다. 거점국립대 중에서는 경북대, 충북대와 함께 가장 높은 등급이다.

종합청렴도는 청렴 체감도(60%), 청렴 노력도(40%), 부패 실태(감점) 등을 평가하는데, 전남대는 청렴 노력 측면에서 전체 평균보다 8점이 높거나 높은 90.8점을 받았다.

전남대는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청렴 캠페인

을 진행했고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청렴교육' 100% 이수율 달성했다.

정성택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이 청렴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정신으로 더욱 모범이 되는 대학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정성택 총장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